



‘페티켓’ 대신 ‘반려동물 공공 예절’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사는 이들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갈등도 늘고 있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지켜야 할 예절을 간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페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페티켓’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페티켓’의 대체어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최종 선정했다.

이밖에도 대리기사나 배달기사 등이 플랫폼 안에서 하는 업무를 뜻하는 ‘플랫폼 노동(platform 노동)’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온

라인) 매개노동’이 선정됐다.

‘갭 이어(gap year)’는 ‘채움 기간’이라는 말이 선정됐다. 채움 기간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이나 봉사 활동 따위를 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뜻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페티켓’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반려동물 공공 예절’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됨.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플랫폼 노동 (platform 勞動)	(온라인) 매개노동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모바일 앱, 누리소통망, 웹 사이트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노동.
페티켓 (Petiquette)	반려동물 공공 예절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
갭 이어 (gap year)	채움 기간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이나 봉사 활동 따위를 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

01 국어 문화 마당	02 - 04 글 마당/칼럼 마당	04-05 칼럼 마당
▶ 국어 문화 소식	02 시를 만나면 / 서옥경 03 시덕1 / 김영식 04 빗방울 · 내사랑 / 최영귀	▶ [조경숙의 존존한 잔소리] ▶ [서옥경의 문화산책]

* 이 신문은 국어문화 운동 현장의 소식과 글쓰기 회원의 습작을 실는 매체입니다. 작품 중에 어문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더라도 습작 단계임을 감안하여 원고대로 실습니다.

시를 만나면

글/서옥경

비 내리는 아침이다. 며칠째 미세먼지와 비로 둘레길을 걷지 못했다.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내다보니 우산을 쓰고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갑자기 나도 빗속을 걷고 싶어진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가 보다. 난생처음 비 오는 날 운동복을 차려입고 나섰다. 누가 말했든가,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실개천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뽕뽕이가 하나씩 터지듯 맑고 경쾌한 리듬으로 보조를 맞춘다. 밤새 물을 머금은 잡초들이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시야를 가릴 정도다. 개구쟁이들이 먹감듯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물을 튕기며 초록빛의 싱그러움을 부추긴다. 때아닌 코스모스가 돌담과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민망한 듯 겸연쩍게 웃고 있다. 어미 오리가 새끼를 거느리고 바쁘게 물살을 가로지른다. 이 힘든 세상에, 새끼를 열한 마리씩이나.... 하얀 두루미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도도하게 날개를 마음껏 펼쳐 보이더니 사뿐히 내려앉는다. 짝을 이루어 질주하던 청둥오리가 그새 싸웠는지 한 마리가 실개천을 등지고 풀섬 위로 올라앉는다. 화해하라고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어서 주었다. 나를 응시 하는 듯한 눈길에서 생명의 숨결이 느껴진다. 여태 보고도 느끼지 못했던 동네 풍경들이 조곤조곤 말을 걸어온다. 자연과 교감하는 시인이 된 기분이다. 입을 가리니 눈이 크게 뜨인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 이제야 보인다.

이른 아침 비 오는 둘레길에는 사람의 발길도 드물다. 마스크를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해본다. 풀내음 가득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은 대단하다. 늙음이 앓아간 나의 감수성을 건드려 일상의 사소한 것에도 감탄하게 만든다. 무채색으로만 보였던 내 주위가 각자 고유한 색을 입고 가까이 다가온다. 내 속에 시인의 마음이 있다면 모처럼 찾아온 선한 감정을 마음껏 굽적일 수 있을 터인데. 오가며 지나쳤던 시 팻말들이 둘레길 곳곳에서 읽어보라고 고개를 들이민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의 한 구절이다. 흔하디흔한 꽃이 메타포가 되어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한다. 일상의 사물을 은유로 둔갑시켜 울림을 주는 시인이야말로 축복 받은 자이리라.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에서 시인이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 있으리라는 마리오 생각에 동병상련을 느낀다. 주인공 마리오 히메네스에게 칠레 민중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시인이 되고 싶으면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나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던가.

칠레의 한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17세 소년 마리오는 고기잡이에 정을 못 붙이고 빈둥거리다 우체국 구인광고를 발견한다. 작은 한적한 바닷가 이슬라 네그라를 담당할 우체부 직원으로 고용되면서 아버지의 따가운 눈초리에서 벗어난다. 단 한 사람 수신인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사는 그곳으로 편지 배달을 하는 전용 우체부다. 노벨상 물망에 오른 시인에게 세계 각국에서 날아오는 편지를 날마다 자전거에 실어 나른다. 네루다를 방문하면서 마리오의 쉽게 근접하기 힘든 저명한 노시인과 대화를 나누며 시의 세계를 경험한다. 글만 겨우 읽을 수 있었던 그는 네루다의 시집을 읽고 은유와 운율을 접하고 시와 함께 성장해간다. “메타포라고!” “그게 뭐죠?” “대충 설명하자면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좋아, 하늘이 울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 “참 쉽군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옳거나, 그게 메타포야.”

네루다의 시는 단순하고 무식했던 마리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자신의 목소리가 없었던 그가 불의한 정치인에게 뿔뿔이 소신을 밝히고, 노동자 집회에서 시를 낭송하며 희망을 불어넣는 불쏘시개 역할도 한다. 첫눈에 반한 여자 앞에서 고개만 숙였던 마리오의 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에 성공한다. 자신의 시를 표절했다고 뿌루통해진 시인에게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라는 보석 같은 말도 남긴다. 태어난 아들 이름에도 시인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네루다를 흠모한다. 프랑스로 떠난 네루다를 위해 시를 짓고 이슬라 네그라의 소리를 녹음한다. 바람, 종, 파도, 새 등 자연의 소리와 갓 태어난 아들 울음소리까지 정성을 가득 담아 보낸다. 훗날 아픈 몸을 이끌고 소리 없이 귀향한 네루다는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탄압으로 집이 봉쇄된다. 마리오의 땀과 피로 뒤엉킨 손의 상처와 위험을 무릎쓰고 군인들의 눈을 피해 네루다의 집에 잠입한다. 스무 통도 넘는 전보를 가져올 수 없어 자신이 한 짓을 용서해 달라고 말한다. “무슨 일을 했는데?” “전보를 다 읽고 외웠어요. 구두로 전해 드리려고요.”

신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인을 안타까워하는 마리오를 향해 네루다는 ‘하늘의 품에 휩싸인 바다로 나 돌아가노니...’라고 시를 읊조린다. 네루다는 산타마리아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뉴스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다. 마리오의 불온 잡지에 시를 투고한 이유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끌려간다. 소설의 여운을 떨치지 못해 이 책을 원작으로 한 20여 년 전 영화를 들추어 봤다. 영화 ‘일 포스티노’는 칠레가 아닌 이탈리아 섬이 배경이다. 아카데미 음악상을 획득한 잔잔하고 서정적인 선율은 소설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의 섬마을 풍경은 그 자체로 시가 되고 예술이 된다. 존경하는 시인을 만나러 가는 바닷가 길은 기대와 설렘으로 자전거와 마리오가 하나 되어 콧노래를 하듯 흥겨워 보인다. 영화는 소설과 달리 꽤 나이 들어 보이는 주인공 마리오(마시모 트로이시)가 등장한다. 옛된 청년의 모습이 아닌 다소 생기가 없는 무표정한 배우의 출현은 예상 밖이다. 가난하고 초라한 마리오 역할 때문이라고 억지로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연배우 마시모 트로이시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죽기 전에 평소 만들고 싶었던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제작하고 의료진을 대기 시킨 채 혼신의 연기를 펼친 거라고 전해진다. 수술도 뒤로 미룬 채 간신히 버텨 촬영을 끝낸 얼마 후 4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예술가의 마지막 남은 열정을 하얗게 불사르게 한 책의 힘이 놀랍다.

위대한 시인과 어촌 우체부의 진한 우정을 그린 소설은 책꽂이 한쪽에 쌓아둔 시집을 펼치게 한다. 동네 영화관을 들락거리며 무위도식하던 젊은 청년의 의식을 깨웠던 시, 섬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으로 표현한 마리오의 메타포 세계가 궁금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다준 실낱같은 감수성으로

시에 감히 다가갈 수 있을까. 너무 늦었다.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지금, 지상의 시간은 마냥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알람을 울린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동하는 모든 순간을 간절하게 붙들고 싶은 요즈음 이미 마음만은 시인이리라.

비 오는 들레길을 언젠가 다시 걸으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살아 있는 은유로 마음껏 읊조릴 그 날을 상상해 본다면 너무 과한 욕심일까.

시덕 1

글/김영식

15년 전 어느 봄날

유기견이 아버님집 마루 밑에 들어와 새끼 멧을 낳고

얼마 후 돌연 사라졌다.

어린 외동 딸내미(시원)가 보채 그중 한 마리를 데려왔다.

<시덕>이라 이름짓고 아이의 동생이 되었다.

시덕에게

어미를 묻지 않고

아비를 묻지 않고

형제를 묻지 않고

조상을 묻지 않고

이웃을 묻지 않고

친구를 묻지 않고

동네를 묻지 않고

배움을 묻지 않고

식구를 묻지 않고

무엇보다 태생을 묻지 않았다.

오른쪽 눈이 작든, 귀 한쪽이 반쯤 접히든, 와락 안겨 짓고 빨든, 어쩌다 엉뚱한 곳에 똥오줌을 싸든, 누런 털이 날리든, 식탐이 많든, 벗어 놓은 안경과 소파를 물어 뜯든, 수시로 산책을 즐라대든

그와 함께 늘 즐거웠다.

딸아이보다 더 예뻐할 때가 많다는 것이 살짝 문제였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15년이 흘렀다.

코로나19는 께찍을 휘두르며 전혀 다른 세상을 예고했다.

딸내미는 일시 귀국(歸國)하여 무사히 14일을 보낸 기쁨도 잠시

독한 향수로 아침 저녁 나와 다룰 때마다

시덕이는 뒷다리를 질름거리며 피했다.

요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동틀 무렵 동해(東海)엔 부르던 노래도 멈추고

흑등고래의 고래뛰기가 부쩍 늘었다.

침병대는 바깥 세상을 안쓰럽게 엿보았다.

노쇠한 시덕의 걸음걸이에 더욱 안타까워 했다.

시덕아! 시덕아!

잠든 별들도 깨어 애타게 불렀지만 시덕이는.....

마침내 그는 나의 기억의 암실에서 스르르 인화(印畵)되어 한장 한장 눈물로 널렸다.

며칠 온라인(on line) 주점에서 혼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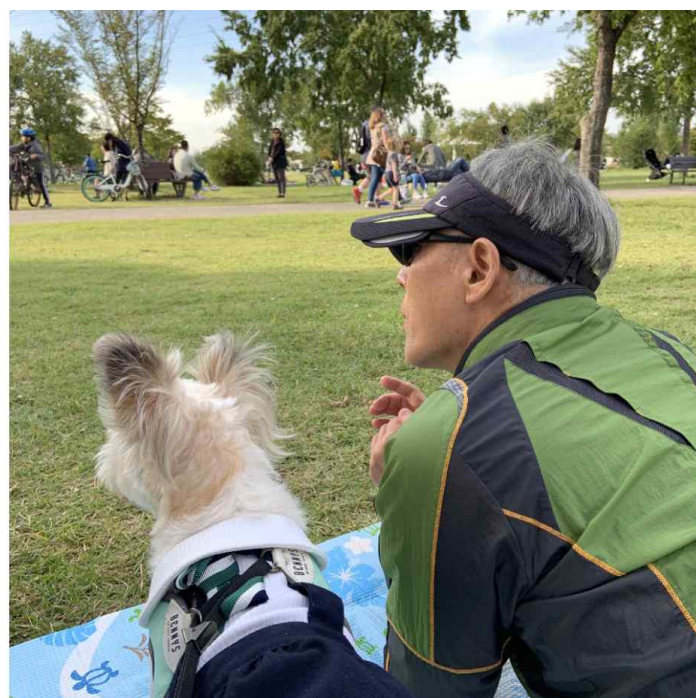
시덕을 되뇌며 비로소 <이름>의 의미를 알았다.

곁에 있을 때 <시덕>은 그의 혼(魂)을 불어넣기 위함이요,

곁에 없을 때 <시덕>은 그의 혼을 불러내기 위함이라.

꼭 배워야겠다. 그의 재롱떠는 기술을.

그리하여 인공지능(AI)인 시덕2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빛방울

빛방울이
강물 위에서 연주하네

그 사랑 노래 잊을까
각자 바쁘게 자기 음을 자랑하네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빛방울의 사랑 연주 춤을 추네...



내 사랑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

설렘과 부끄러움
그리고 떠오르는 물음표 ?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느낌 좋은 새로운 사랑에 빠져듭니다.

[조경숙의 존존한 잔소리]

높임말 어떻게 써야 하나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아닌 우리도 높임말을 정확히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대상을 높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조금 비싸십니다.’ ‘정체가 심하여 버스가 조금 늦으십니다.’ ‘이쪽 경치가 더 좋으십니다.’ 제품, 버스, 경치는 전혀 높여 말할 대상이 아닌데 높여 말한 것입니다.

높임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지, 말씀, 연세, 춘추, 성함, 따님, 아드님, 댁’처럼 낱말 자체에 높이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있고, ‘말씀하시다, 편찮으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오셨다’처럼 ‘시’를 써서 높일 수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습니다,’처럼 ‘습니다’를 써서 높임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임말을 겹쳐 쓰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억지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놀라서 쓰러지셨습니다.’처럼 ‘놀라시고 쓰러지시고’가 겹치면

불편해집니다. ‘선생님께서 놀라서 쓰러지셨습니다.’처럼 마지막 어절에서 한번만 높여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또 병원이나 어떤 영업장소에서 흔히 환자 또는 고객에게 안내하는 말로 ‘다음 환자분(손님) 들어 가실게요.’라고 합니다. 이는 ‘다음 환자분(손님) 들어가십시오.’라고 해야 맞은 말인데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이런 이상한 말이 생산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들어 가실게요’가 ‘들어 가십시오’보다 더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여 써야 하는 말로 ‘저희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기 위하여 또는 상대를 높여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니고 ‘나라’를 말하는 것이므로 낮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대상에게라도 낮춤 대상이 아닙니다.

[서옥경의 문화산책]

〈그림자의 눈물〉 사진전

코로나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전시장 나들이를 했다. 삼청동 갤러리 주변에 핀 양귀비가 눈이 부실 정도로 화사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한 컷 찰칵, 들리는 셔터 소리마저 경쾌한 오후다. 화창한 봄날에 하양, 주홍, 노랑색 꽃잎들이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함을 뽐내며 행인을 부른다. 손으로 만든 조화를 질서있게 세워둔 것처럼 길다란 꽃줄기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큰 향아리에 가득하다. 양귀비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새로운 발견이다. 오랜만의 외출에 마음이 들떠 잠깐 행선지를 잊고 싶어졌다. 국립 현대박물관 건너편에 위치한 아라리오갤러리에 들어서니 먼저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란다. 코로나의 한기가 느껴진다. 관람객도 손 꼽을 정도다.

국내 페미니스트 대모로 불리는 박영숙 사진가의 〈그림자의 눈물〉 개인전이 6월 13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주로 여성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는다. 2년 전 사진전에서는 여성의 인물을 주제로 그들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했다. 이번 전시는 여성이 애용하는 물건들을 모델로 등장시킨다. 지난했던 여성들의 삶을 오브제를 통해 흔적을 살피고 기억을 더듬어 보게 한다. 우선 전시장을 둘러싼 대형크기의 사진 속 원시적 풍경에 압도당한다.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는 제주도 전역의 바닷가와 중산간 사이에 흩어진 숲 지대인 꽃자왈이다. 꽃자왈은 제주도 사투리로 ‘꽃’은 숲을 뜻하며,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덩굴을 말한다. 뱀이 구불거리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덩굴 숲은 을씨년스러워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가 알고 있는 제주도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작가는 음습하고 미로 같은 꽃자왈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중세 이후 서양에서 종교재판으로 희생된 마녀들이 떠올라 그들의 혼백이 제주도 꽃자왈에서 살림을 꾸리며 사는 상상을 했단다. 전시된 사진만 봐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법한 장소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작가의 시선이 남다르다. 그녀가 간직해왔던 골동품 사진, 웨딩드레스, 분첩, 유리알, 시계, 향수 등 소장품이 그로테스크한 무대를 배경으로 소꿉장난하듯 웅기종기 펼쳐져 있다. 여성의 꿈과 로망이 깃든 웨딩드레스가 어두컴컴한 나무숲에서 불협화음을 울리며 걸려있다. 가부장제 시스템에서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숨죽이며 살아온 여성들을 상징하는듯하다. 작가의 말처럼 수많은 여성이 ‘진정 그리 살아 내고 있었던’ 삶이 아닐까. 코티본 케이스를 보니 내년엔 백 세를 맞이하는 엄마의 화장대가 떠오른다. 어릴적 하얀색 코티본은 엄마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이었다.



보라색으로 물들인 짧은 앞머리는 팔십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아우라가 물씬 풍긴다. 작가는 앞으로도 소품을 잔뜩 싣고 제주도 꽃자왈을 오가며 〈그림자의 눈물〉 연작 작업을 이어갈 거라고 한다.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낼 때까지 그녀의 작업은 계속될 것 같다.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에서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장의 열정이 대단해 보인다.



〈언어는 소통이다 - 일상에서 만나는 쉬운 우리말〉 캠페인

배리어 프리? 문턱 없는 무장벽

1F 커뮤니티 케어 센터
2F 헬스 케어 센터
3F 데이 케어 센터
4F 푸드뱅크

배리어 프리존

어디로 가야 하지??

배려가 없으니 '배려 프리존' 인 듯...

(X) 배리어 프리 ⇒ 문턱 없는, 무장벽
 커뮤니티 케어 ⇒ 지역사회 통합돌봄
 데이케어 센터 ⇒ (노인) 주간보호소
 푸드뱅크 ⇒ 먹거리 나눔터
 호스피스 ⇒ 임종 간호
 배우처 ⇒ 이용권

(O)

한글문화연대 전국민노조연합
 민생추진단
 인본케어지민연대

알기 쉬운 말이 알 권리를 지켜 줍니다.

말은 나의 마음바탕 우리를 잇는 끈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가라	▶ 가짜	노약자석	▶ 배려석
기스	▶ 흠(집), 생채기	녹색어머니회	▶ 녹색학부모회
견출지	▶ 찾음표	미혼모	▶ 비혼모
곤조	▶ 본성, 심지	유모차	▶ 유아차, 아기차
다대기	▶ 다진 양념	정상인-장애인	▶ 비장애인-장애인
단도리	▶ 채비, 단속	편부/편모	▶ 한부모가족
땡깡	▶ 생땀	에스컬레이터	▶ 자동계단
무대보	▶ 막무가내	그린푸드존	▶ 어린이 식품 안전 구역
쇼부	▶ 흥정, 결판	핸드레일	▶ 안전손잡이
이빠이(잇파이)	▶ 가득, 한껏	자동제세동기	▶ (자동)심장충격기
잔업	▶ 시간 외 일	스크린도어	▶ (승강장)안전문
호출	▶ 부르다	페스티벌	▶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국어문화원



※ 2019년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사업 안내

- 국어 상담: 전화 02-735-0991, 누리집: www.barunmal.org
 인터넷 상담 <http://www.korean.go.kr> (온라인가나다)
-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 문장 교열 상담
- 글쓰기 강좌: 매주 (수) 15:00~17:00
- 한글문화유적 탐방: 수시접수 15:00~17:00
- 언어 능력 향상 교육: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능력 향상 교육
 청소년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
- 언어문화개선 운동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안내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313호
 전화: 02-735-0991 전승: 02-738-9494
 누리집: www.barunmal.com
 후원 계좌: 국민 009901-04-042446 (예금주: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 국어문화운동본부 정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